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THE UNITED

MATCH DAY MAGAZINE
2016.05.01 / 제4호

8 ROUND



VS
ULSAN HYUNDAI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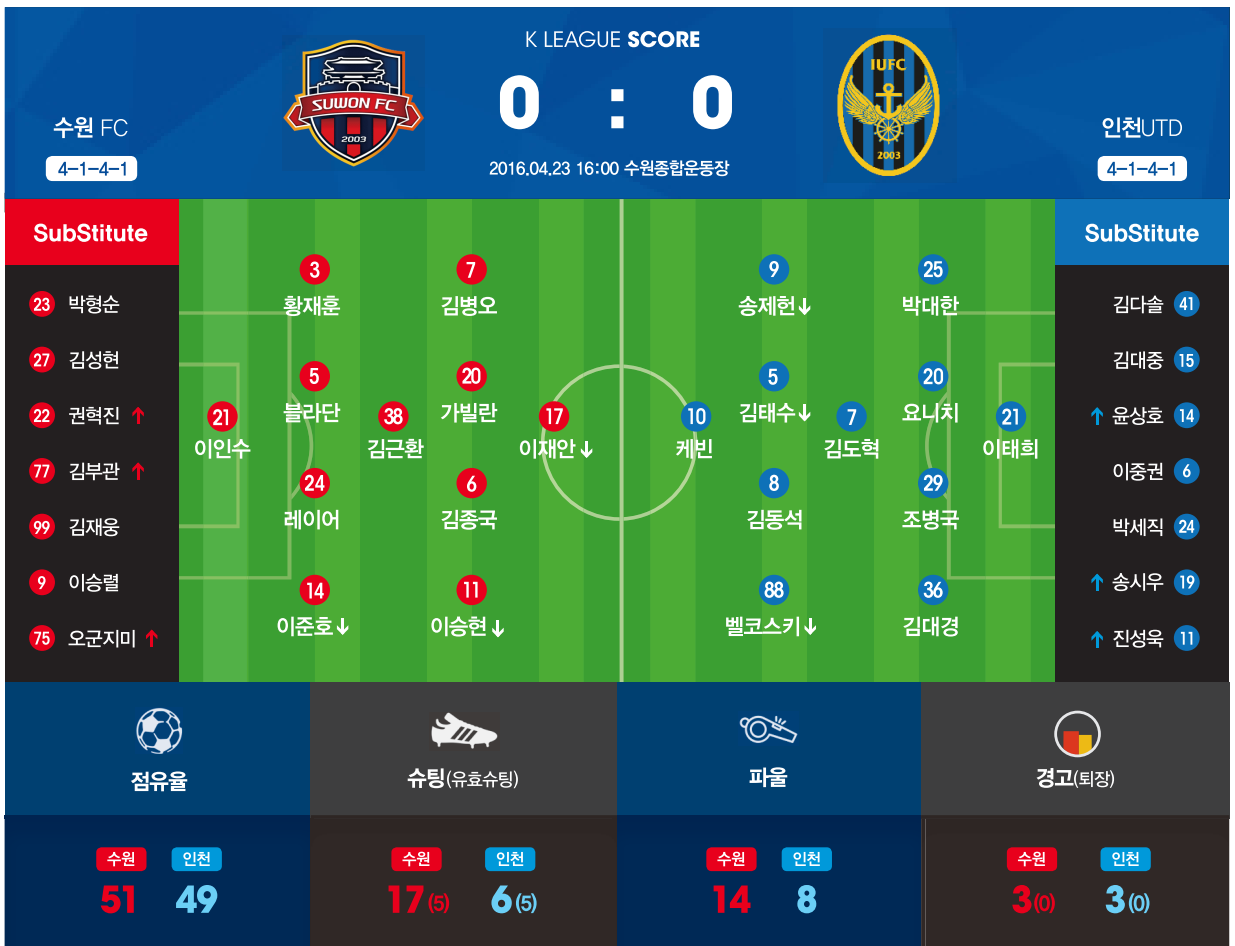
순위 상승의 열쇠,
'애매한' 울산 잡는다

NEWS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주초등학교에 뒀다!

INTERVIEW

인천의 '메시'
송시우를 만나다



‘첫 무실점’ 인천, 수원FC 원정경기서 0-0 무승부

인천유나이티드가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적지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인천은 지난 23일(토) 오후 4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7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승현, 김병오 등 상대의 측면을 원천 봉쇄하는 완벽한 수비력을 보이며 접전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꾸준히 노출되었던 불안한 수비는 더 이상 없었다.

인천은 김태수가 선발 출장에 주장 김동석과 발을 맞쳤다. 최전방 케빈을 중심으로 좌우에 벨코스키, 송제현이 자리잡았고 수비는 김대경, 조병국, 요니치, 박대환이 선발로 낙점됐다. 골키퍼 장갑은 이태희가 차지했다. 상대 수비가 높이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은 주로 측면을 공략했다.

김대경과 박대환은 상대 공격을 막고 활발히 역습을 시도하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수비는 합격점을 줄만했다. 5라운드부터 손발을 맞춰온 조병국, 요니치 조합은 상대의 박스 진입을 저지했고 공중볼 다툼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수비에 안정감을 안겨줬다. 다만 공격에 나서는 속도는 여전히 아쉬웠다. 후반 들어 진성욱, 송시우 등이 가담해 공격 속도를 높였지만 전반적인 날카로움과 정확도는 부족했다. 하지만 소득도 있었다. 올 시즌 7경기 만에 첫 무실점 경기를 펼친 인천은 일단 지난 시즌 수비와 같은 단단함을 되찾았고, 이에 수비 안정을 바탕으로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무실점 보약’ 먹은 인천, 울산을 넘어라!

지난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인천유나이티드가 안방으로 돌아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인천은 오늘(1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울산 현대를 불러들여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연패의 사슬을 끊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올린 인천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울산을 제물로 시즌 첫 승을 거둔다는 각오다. 안정된 수비가 강점이었던 인천은 다시 굳건한 수비를 갖췄다. 첫 승을 위한 적기다.

순위 상승의 열쇠, ‘애매한’ 울산 잡는다

인천은 지난해 8위로 시즌을 마쳤다. 극적으로 상위스플릿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막바지에 확실한 결과를 따내지 못해 결국 발목을 잡으며 진한 눈물을 흘렸다. 인천은 지난 시즌 울산과 4차례 맞붙어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인천과 울산과의 경기는 늘 대등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이 하위권을 벗어나 높이 오르기 위해선 먼저 울산을 첫 승 제물로 삼아야 한다.

윤정환 감독 2년차를 맞이한 울산은 여전히 답답한 공격력으로 경쾌하지 못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수비적인 경기 운영으로 공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 2연패를 기록하고 있어 흐름조차 좋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인천을 상대로 3골을 기록했던 김신욱도 전복으로 떠났기에 지금의 울산이라면 충분히 첫 승 제물로 삼을 만하다.

측면 우위를 위한 첫 사냥감, 코바

2년차 외국인 선수 코바는 장신임에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부드러운 드리블 능력과 정확도 높은 킥을 보유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울산은 공격보다 수비, 모험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원정 경기이기에 먼저 웅크린 후 코바를 비롯한 빠른 측면 자원을 앞세워 역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격 정확도가 높은 코바를 제압한다면 경기는 그만큼 수월해진다. 예측 및 협력 수비로 코바를 사냥한 뒤 늑대 축구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울산을 잡아야 한다.

예상 포메이션



상대전적		
통산기록		
9 승	10 무	17 패
35득점 52실점		
2015년		
3 무	1 패	
5득점 6실점		



I U F C M E S S I W O O



NO. 19 송시우

🇰🇷 1993. 08. 28 / 173cm 71kg

🏠 2000~2005 마산합성초

🏠 2006~2008 김해중학교

🏠 2009~2011 수원공고

🏠 2012~2015 단국대학교

🌐 2016~ 인천유나이티드



Q. 처음 축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조기축구회도 나갈 만큼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보니 당시 마산 합성초 감독님께서 저를 아시고 눈여겨보신 다음에 스카웃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축구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인천 입단이 결정되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작년 축구계 취업난이 정말 컸어요. 프로 구단들이 신인을 많이 선발을 안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졸였죠. 인천 입단이 결정됐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Q. 데뷔전(4라운드 성남전/2-3 패)이 생생히 기억날 것 같은데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요?

아마 10분 정도 뛰었던 걸로 기억해요. 프로 데뷔전은 축구를 하며 늘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꿈이 현실이 되니 아무것도 안보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냥 열심히 뛰었습니다.

Q. 최고의 4월 한 달을 보냈는데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4월만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웃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득점 후 ‘만세 셀레브레이션’을 하셨는데 계속 사용하실 생각 아신가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촌스럽다고 하네요.(웃음) 셀레브레이션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팬들이 엠블럼을 입에 물거나 서포터석으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해보겠습니다.

Q.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연습경기를 위해 처음 인천 홈구장을 방문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구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뛰고 있어요. 제가 인천이라는 팀에 입단해서 이런 멋진 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Q. 이번 상대가 울산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울산이 작년에도 성적이 안 좋았고 올해도 좋지 못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현재 인천도 성적이 좋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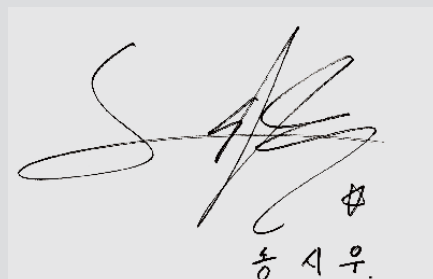
Q. 이번 시즌 목표와 목표 달성 시 공약을 거신다면?

5골 5도움! 올 시즌에는 개인적으로 공격 포인트 10개를 목표로 잡아놨어요. 달성한다면 팬 중에 한분을 뽑아 영화도 같이 보고 식사도 대접하겠습니다.(웃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 팬들에게 한마디

인천 팬 분들은 정말 열정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3라운드 서울 원정(1-3 패)때 원정석에서 경기를 봤는데 인천이 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응원을 보내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우승민 UTD기자 (wsm3266@hanmail.net)



홍시우.

인천유나이티드 단신뉴스

INCHEON UNITED F.C.



#1. '떠오른 샷별' 송시우 K리그 클래식 5, 6라운드 BEST 11 선정

인천유나이티드의 '떠오른 샷별' 송시우 선수가 K리그 클래식 5, 6라운드 BEST 11에 2연속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단국대 졸업 후 올 시즌 인천에 입단한 송시우 선수는 지난 5라운드 전북현대전과 6라운드 수원삼성전에서 팀이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득점포를 연속 가동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인천에 귀중한 승점을 선물했습니다.

#2. 인천유나이티드가 '자매결연학교'인주초등학교에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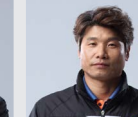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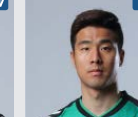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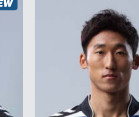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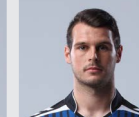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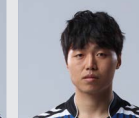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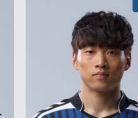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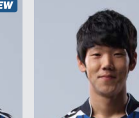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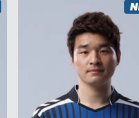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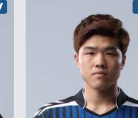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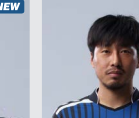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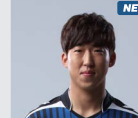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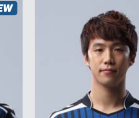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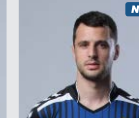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이 올해 첫 사회공헌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천은 지난 20일 자매결연학교인 인주초교를 방문해 축구특강 및 사회인회 등을 통해 인주초교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천 선수단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우리의 빛' 장애인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인천, R리그 4라운드에서 성남과 0-0 무승부 기록

인천유나이티드가 R리그 두 번째 승리 신고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인천은 지난 26일 승기천연구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R리그 2016' 4라운드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진성욱, 송시우, 이현성, 김경민 등 많은 선수들이 K리그 클래식 출전을 대비해 예열을 마쳤습니다.

선수명단

 감독 김도훈	 수석코치 이기형	 코치 김성일	 코치 박성철	 GK코치 김이섭	 의무트레이너 이승재	 의무트레이너 이동원
 의무트레이너 양승민	 1 GK 조수혁	 21 GK 이태희	 31 GK 김교빈	 41 GK 김다솔	 3 DF 김용환	 4 DF 김경민
 15 DF 김대중	 16 DF 이윤표	 17 DF 권완규	 20 DF 요니치	 25 DF 박대한	 29 DF 조병국	 35 DF 유재호
 5 MF 김태수	 6 MF 이중권	 7 MF 김도혁	 8 MF 김동석	 13 MF 이현성	 14 MF 윤상호	 23 MF 김세훈
 24 MF 박세직	 26 MF 박병현	 33 MF 김태훈	 37 MF 박종진	 55 MF 조영준	 60 MF 찔엉	 9 FW 송제현
 10 FW 케빈	 11 FW 진성욱	 18 FW 한남규	 19 FW 송시우	 22 FW 광성욱	 27 FW 이진욱	 28 FW 이효균
 30 FW 원동근	 32 FW 홍정률	 36 FW 김대경	 88 FW 벨코츠키			

NEXT MATCH



인천

VS

2016. 05. 05(목) 14: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남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utd2003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utd

> Premier Sponsor



> Official Kit Sponsor



> Official Sponsor



> Official Partner



 인천유나이티드 시즌권으로 축구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재미난 영화도 보자!



인천점, 인천터미널점, 인천논현점, 주안역점,
계양점, 인천공항점



드마리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지젤타워 3층
프라임마리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6번지 아이즈빌 아울렛 2층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 3층

현장구매시 2000원 할인

- 프라임 (월~목, 16시~22시 이전)
(금~일, 10시~24시 이전)
-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 할인미적용(좌석) 이코노미 좌석
- ※ 할인미적용(시간대) 모닝, 브런치, 문라이트, 나이트

- 50%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50% 할인
- 30% 동반 5인까지 30% 할인
- 10% 경기 당일 티켓 소지자 10% 할인

- ※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 12월 한 달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 20%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20% 할인

- 10% 경기 당일 티켓 소지자 10% 할인

- ※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은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